

### 3월 12일 수행일기



성광문

군산 인쇄소 대표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엄청난 폭설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린 83년 겨울 어느날 오후, 설경의 정취에 취해 있던 내가 갑자기 엄습해 온 삶의 허무를 느끼며 무작정 찾아 나선 곳이 군산시 근교에 있는 은적사였다.

그런 인연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게된 필자는 불교 공부를 하며 지옥중생을 하나도 남김

“어제 즐겁고 좋은 하루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만 저에게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서는 항상 ‘지장보살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남 앞에서든, 사업상 고객을 만날 때도 자신감이 넘치는 나를 발견하곤 한다.

몇해전 신년 인사차 군산 관음사에 들린 필자는 주지 재공 스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웃에 대한 봉사,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인욕 등 육바라밀의 실천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들었다.

이때부터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수행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었. 지난 95년부터는 군산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재소자 교화 활동에 나서 남사 법당에 음향 시설 및 비디오 시설을 갖추어

### ‘지장보살 닦기’ 원 세워 노력 교화, 장애인 복지 통해 수행

없이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대원(大願)을 접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실천을 하리라는 발원을 하게 됐다. 그래서인지 군산지역의 불자들이 함께 ‘지장회’라는 모임을 만들면서 초대 회장을 맡아 10여년 간 지장경을 하루도 빠짐없이 독송해 왔다. 일을 하다가도 틈만 나면 지장보살님을 관하며 ‘지장보살’ ‘지장보살’을 중얼거리며 길을 걸거나 잠을 자다가도 지장보살님을 생각하면 그저 흥이 나고 가슴이 설레었다.

그 후 지금까지 10여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새벽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지장보살님 전에 예경과 108배, 30분 간의 지장정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지장정진으로 하루를 마감한다. 새벽에 ‘지장보살’을 외우면 일터에서 근무하면서도 정진이 이어지는 듯하다. 그래서 새벽 정진을 할 때면 하루의 서원을 함께 담게 된다.

주거나 여사 법당을 조성해 재소자들에게 새 삶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자 나름대로 애쓰고 있다. 군산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는 매년 여름 선종기 30대를 보시하고 겨울에는 연탄난방 세대 50세대에 연탄 200장씩을 보시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애써 보기도 했다. 또 필자가 운영하는 업체인 아주실업의 전체 직원 45명중 12명을 정신지체장애인으로 고용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신규 채용시에도 장애인을 우선 채용해 장애인 사회복귀와 취업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바로 지장보살의 원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보다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속에서 지장보살의 큰 서원을 느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지장보살과 닦아가려는 노력을 내 수행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



◇600여 불자들이 8일 관문사에서 철야관음정근하며 자성불과 하나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8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우면산 기슭에 자리잡은 관문사에서는 밤새도록 관음 정근이 계속되고 있었다. 거대한 7층 건물 위에 대불보전을 전통양식으로 앉힌 이 사찰은 천태종 도심포교의 상징이자, 최근 떠오르고 있는 기도 명소이기도 하다.

염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4층 옥불보전에 올라가니 600여 불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앉아

우거나, 108배를 곁하며 관음정근을 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것은 중년 또는 할머니 보살님들과 함께 청년, 장년층 거수들이 적지 않다는 점. 이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신도들의 정근을 이끌었다.

새벽 3시반이 되어 예불을 올릴 때까지 절반의 신도들이 집으로 돌아갔지만 정진의 열기는 대단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과 후에 따로 정진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찰의 불

### 수백명 동시 하는 염송 집짓고 기운 돈아 일하고 수행하는 가풍 실생활에서 실천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관음 염송’ 삼매에 빠져 있었다. 매일 오후 10시부터 익일 4시까지 진행되는 철야 관음정근에는 평일 400여명, 주말 또는 1주일 특별정진 기간에 600~8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정진중이다.

기자는 신도들과 같이 관음 정근을 해보았는데 집중이 잘 되었다. 600여 신도들이 동시에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공명(共鳴)이 잠을 쫓고 기운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듯했다. 일부 신도들은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 큰소리로 외

자들이 보면 발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처럼 천태종 신행의 구심점은 관음 정근에 있었다.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上月圓覺: 1911~1974) 대조사는 종단의 소의경전인 법화경 중에서도 ‘관세음보살보문품’을 중요시 하고 전 종도들에게 이 경문을 수지독송하고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생각생각에 잊지 않고(念念不忘)’ 각자가 1백만번 이상 지성으로 부라고 교시(敎示)한데 기인한다.

그래서인지 천태종에는 기도와 수행을 열심

###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관문사의 ‘관음정근’

히 하는 말뚝 신도들이 많다. 처음 개인적인 고난을 이겨내거나 기복을 위해 정진하던 불자들이 법화경 6만9천384자의 뜻을 함축한 ‘관음 주송’의 위신력을 체험한 후 새로 발심해 육안, 천안, 혜안, 법안을 얻어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하게 된다. 관문사신도회 하성훈(55, 서울 은봉동) 교화위원은 “관문사 금강불교대학의 교리 공부 신도들을 기복신앙에서 수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음 정근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빨리 일념-무념의 삼매에 드는 수행방편 가운데 하나다. 천태종에서는 이런 원리 때문에 관음 주송을 ‘설선(說禪)’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화계사 조실 승산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든, 아미타불이든 일념이 되게 부르면서, ‘염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관하면 참선과 다름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호 스님이 ‘나 무 아미타불’을 방방곡곡 전했듯이, 선지식들이 후학들을 쉽게 공부하도록 이끈 방편이 관음 정근이다.

관음 정근에 열심인 관문사 신도중에는 관세음보살의 가피를 입는 것은 물론 무아의 상태와, 자성불(自性佛)이 관세음보살과 하나되는 경계를 체험한 신도들이 적지 않다. 관문사 신도회장인 배두출(70, 안양) 교법사는 “흔히 관음 정근을 낮은 차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지만, 무아의 상태에서 삼매를 체험하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이러한 방편이 없다”면서 “특히 집하기를 병행해 관음 정근을 해보면, 업장을 소멸하고 힘을 얻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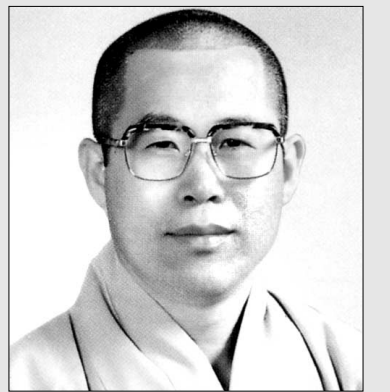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

### ‘관세음보살’ 1승은 법화경 1독의 공덕

“법화경 6만9천384자의 의미는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집약되어 있고, ‘관세음보살’이란 명호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관세음보살’을 주송하는 것은 법화경을 한번 읽는 것과 같은 공덕과 수행효과를 나타냅니다.”

관문사 주지 춘광 스님(천태종 교무부장)은 천태종의 관음주력은 천태지의(538-597) 대사의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 원돈지관(圓頓止觀)의 네 가지 삼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돈지관 수행법은 부처님의 사념처관 중 마음을 관찰(觀心)하며 진리를 통찰하는 수행법으로서, 천태종은 상행삼매(常行三昧), 상좌삼매(常坐三昧), 반행반좌삼매(半行半坐三昧), 비행비좌삼매(非行非坐三昧) 등 4종삼매 가운데 ‘비행비좌삼매’를 중시한다. ‘비행비좌’라고 하는 것은 몸이 행주좌와에 걸리지 않고 자유로워 어떤 때나 어떤 곳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미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주송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스님은 이러한 수행으로 “삼독심과 온갖 번뇌를 떨치고 발원의 성취와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수행 캘린더

■수선회 참선교육=수선회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및 오후 7시에 제 59기 참선교육을 실시한다. 3월 18일 참선의 자세, 25일 참선의 종류, 25일 선종 발달사, 4월 1일 화두의 중요성, 8일 화두 참구법 등. (02)732-5960

■성주사 니르바나정진=경남 창원 성주사는 기도 및 고승 설법, 백팔잡회 등으로 진행되는 니르바나 정진대법회를 연다. 법문 일정은 12일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13일 전 해인사 주지 도성 스님, 14일 중앙승가대 대학원장 흥선 스님, 15일 성주사 회주 흥교 스님, 1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 스님, 17일 조계종 대강각 박사 성수 스님 등. (055)262-0108

■호두마을 3월 수련=천안 호두마을은 3월 14-16일(정월 법사, 17-23일(혜연 스님), 28-30일(정월 법사) 3월 수련회를 연다. 호두마을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2박3일간 주말수련회도 연다. (041)567-2841

■부처님 호휴법 수련=양평 법왕정사 주지 청경스님은 3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3시 서울 강남 청호불교문화원 7층 대법당에서 부처님 호휴법을 수련한다. 호휴에 맞춰 절하기, 참선, 독경, 행선, 위빠사나, 업장소멸 진좌회 등을 지도한다. (031)771-7745

■외국인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부산 남산 국제선원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에 외국인 스님과 함께 하는 참선기초반 및 선무도반을 연다. 3월 30일 오전 10시 무심 스님(논산 무상사) 초정법회도 연다. (051)518-7913

■14기 근반불교학교=롯데백화점 스님은 3월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위빠사나, 참선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제 14기 근반불교학교

를 개최한다. △서울 지혜선원 (011-9557-8730)=화 오후반 2-4시, 저녁반 7시30분-9시30분, 보라매법당서 △부산 다보선원 (055-331-6118)=금 오전 10시 30분-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 토 오후 4-6시 △대구 지혜선원(053-255-0442)=목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오후 7시30분-9시30분 △대전 지혜선원 (055-331-6118)=수 오후 2-4시, 7시30분-9시30

#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인하여 보관

##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장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장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봉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화사에서 새로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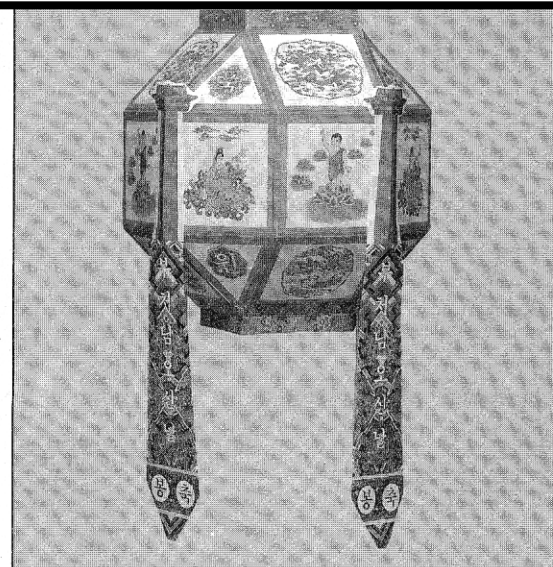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되었 기원합니다.

이 화 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이제 연등에 번잡한 폴질이 필요없습니다!!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시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밭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경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화,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족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걸지 합지 방식)
- 
- 4P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